



제목	Extraterritorial Dreams: European Citizenship, Sephardi Jews, and the Ottoman Twentieth Centu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발행일	2016. 6. 10.
저자	Sarah Abrevaya Stein
출판도시	Chicago
페이지수	240
ISBN 또는 ISSN	978-0226368221

내용 요약

『치의법권의 꿈: 유럽 시민권, 세파르디 유대인, 20세기의 오스만』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오스만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험을 통해 유럽 시민권의 본질을 추적한 책이다. 저자 스타인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16세기 프로티지(protégé, 피보호자)의 지위를 약속받았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에 거주하는 비무슬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의 한 형태였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 세금 면제, 이슬람 율법 면제의 특권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지위는 오스만이 제국에서 민족국가로 전환되면서 시민권의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바그다드에서 태어나 상하이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영국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라는 것,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어떤 포르투갈인, 비엔나에서 태어난 어떤 프랑스인은 오스만 제국령이든 포르투갈이든 프랑스든 가보거나 거주한 적이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이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오스만 제국의 유대인들은 오스만 제국에서 유럽 전역으로 이주하면서 오스만의 법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는 20세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장 '매혹적인 신민들'은 발칸 전쟁과 그리스 지역의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다. 2장 '프로티지 피난민들'은 1차 세계대전 시기 아르메니아의 집단학살을 통해 보호의 법적인 가치를 주장하였다. 3장 '허구적인 국가의 시민들'은 20세기 초 유럽인들의 팽창에 관한 지리적 이주의 역사이다. 4장 '보호받는 사람들?'은 정치 지리적 상황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유대인 개개인에 대한 미시적인 역사까지 포함하였다.